



2월 11일

두 눈을 살짝 떠 보아요.

콩콩콩~

아, 향기가 나요.

보들보들 손끝에 부드러운 것이 닿아요.

그런데 여기가 어디죠?

보이지가 않아요.

왜 그럴까요?

맞아요!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.



짠! 빛이 밝아지자 여기가 어디인지 알았어요.

부드러운 풀잎과 꽃 향기가 가득한 꽃밭이에요.  
빛이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어요.

빛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요.



# 생각하는 아이

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.

"성경의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왔단다. 남우는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하지?"

"음~, 불부터 켜요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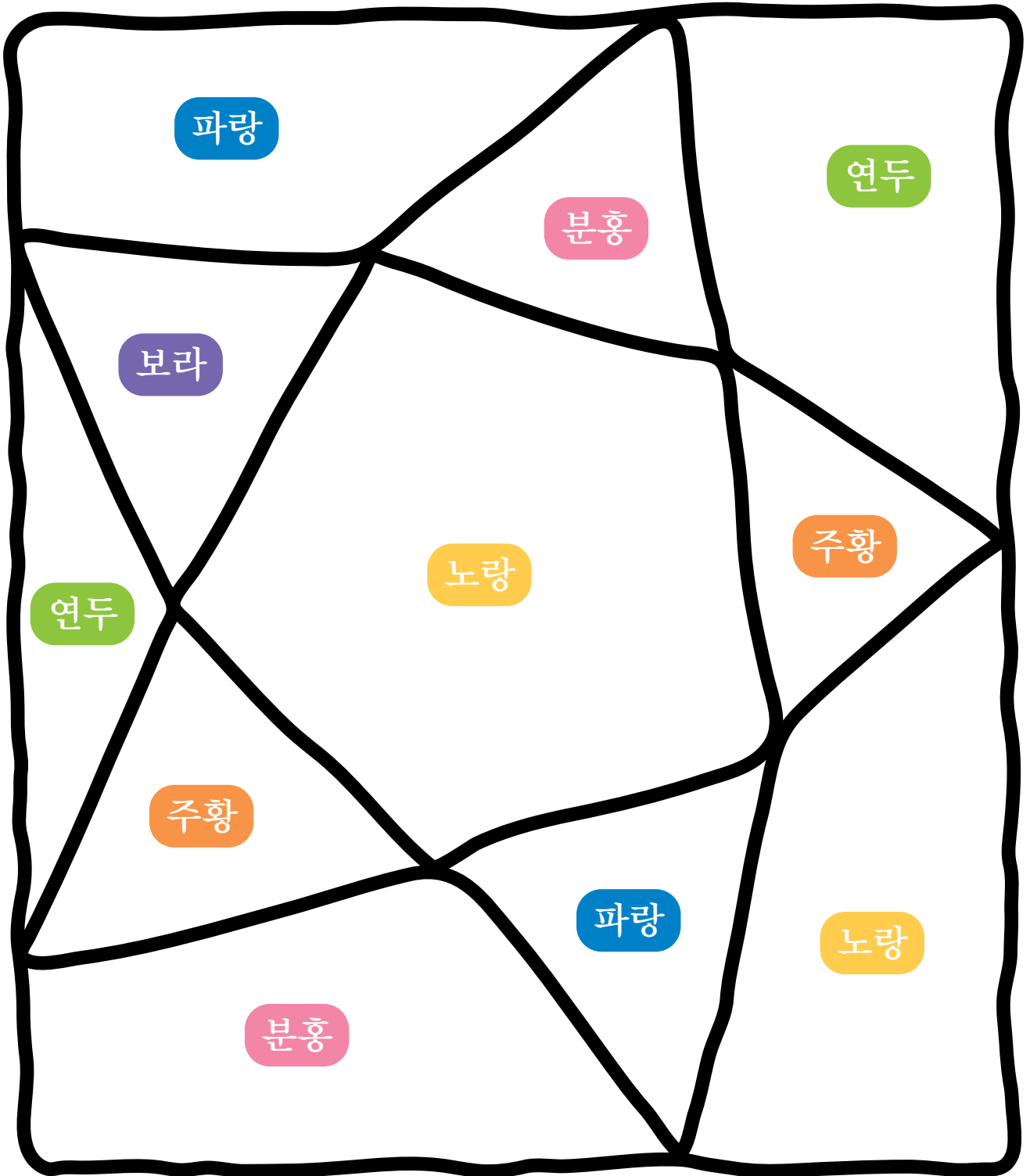


"그래, 하나님께서도 빛을 제일 먼저 만드셨단다.  
빛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나무, 꽃, 동물들에게도 아주 중요해.  
하나님께서 그 다음 어떤 것들을 만드셨는지 함께 밖에 나가서  
알아보기로 하자."



# 즐거은 활동

그림조각을 예쁘게 크레파스로 색칠해요.  
그리고 검정색 크레파스로 덧칠해요.  
뽀족한 것으로 그림을 그려 보세요. 어떻게 보이나요?





# 마음속 암송

## 따라 쓰기

빛이 있으라 하시매  
빛이 있었고  
창세기 1장 3절

## 다시 쓰기

--	--	--	--	--	--	--	--

--	--	--	--	--

--	--	--	--	--	--	--

선생님께

부모님께